

식민말기 김남천 소설과 경성대화숙(京城大和塾)의 거리*

- 「등불」의 서간체와 액자형식을 중심으로 -

이동재**

〈차 례〉

- 대화숙(大和塾)이 던져 놓은 화두
- 진정성의 레짐과 전유된 서간체
- 액자구조의 연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 결 론

[국문초록]

이 글은 식민말기에 발표된 김남천의 사소설적 작품 「등불」(1942.3)과 사상검사 나가사키 유조의 주도로 성립된 '대화숙 체제'가 맺고 있는 문학적 함수관계를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김남천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식민체제의 폭압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총체적 기관'과의 인식론적 대결에서 구할 때, 그가 41년 3월 10일부터 한 달간 '경성대화숙'주최 '황도 사상수련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왔다. 41년 1월 사상보국연맹 후신으로 결성된 대화숙은 연성 도장을 갖추고 사상범을 직접 입스케 하여 보호사와 공동체 생활을 시키는 독특한 교화사업을 추진했다. 이때 사상범은 자신의 사적 영역을 투명하게 노출하며 숙내 국어강습소 교원으로서 전시동원체제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사상전력자의 공사(公私)감각에 대한 해석적 교편을 절취함으로써 소설문학을 지지하는 허구적 상상력과 작가의

* 이 글은 민족문화사연구소 주최 <비담론의 동아시아 두 번째, 점령지와 국민>(2024.1.5.)에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부족한 글을 깊게 살피주신 양순모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7049472).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내적 자율성 자체에 거대한 위협을 야기한 공간기획이었던 셈이다. 「등불」은 대화숙 체제의 성립으로 인해 가중된 자기고백과 진정성에 대한 요구를 문학적 주제로 변환시키고 있다. 4개의 서간문과 1개의 일화로 구성된 이 소설은 사소설, 서간체, 액자구조 등 세 개의 형식을 교직해 놓은 것이다. 서간체는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의 이차적 의사소통 관계망을 내세움으로써 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형식이다. 이때 독자는 소통 채널 밖에 존재하기에 예술의 진정성을 포획할 수 있는 ‘관찰자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 나가사키 유조 역시 『대화숙일기』의 서문을 통해 자신의 내적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서간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한다면 감시자가 신뢰하는 문학적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전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 주목을 요하는 지점은 서간문을 병렬함으로써 성립되는 액자구조이다. 이 액자구조는 소설을 둘러싼 세 층위의 ‘나’(김남천, 소설 속 작가, 장유성)가 동일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지표 구실을 한다. 서간체를 통해 독자에게 예술의 진정성을 포획할 장소는 할당해주고 액자구조를 통해 발화주체의 단일성은 해체한 것이다. 때문에 소설의 언표된 내용은 단일한 발화행위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주인 없는 말’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소설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서간문에서 서술자가 암시한 ‘절반의 소설’이란 텍스트의 액자구조를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작가 김남천과 소설의 서술자를 동일인으로 읽어내려는 사소설 문법을 교란하며 텍스트 전체를 허구적 산문 예술이라는 소설의 본도에 위치 짓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남천이 오래전부터 사표로 삼아온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역시 자신의 작품을 사소설과 분리시키기 위해 액자형식을 도입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남천의 「등불」은 사상통제기구의 공간기획 속에서 사멸되어 가는 문학적 자유를 조금이나마 확보하고자 하는 희망의 흔적, 혹은 노스텔지어의 산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화숙, 수양회, 등불, 서간체, 액자형식, 사소설, 김남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나가사키 유조

1. 대화숙(大和塾)이 던져 놓은 화두

이 글은 식민말기 김남천의 과작(寡作) 현상 속에서 발표된 사소설(私小說)적 작품 「등불」(1942.3)¹⁾이 41년 1월 성립된 ‘대화숙 체제’와 맺는 함수관계를 검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김남천은 사상통제 아래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바 있고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문학에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서대문형무소라는 ‘총체적 기관’²⁾

1) 김남천은 문학 여정 내내 ‘사소설’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소설을 다수 발표했다. 이를 일별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물!」(1933), 「남편, 그의 동지」(1933), 「녹성당」(1939), 「이리」(1939), 「어머니 삼제」(1940), 「등불」(1942), 「어떤 아침(或る朝)」(1943), 「신에게 대하여」(1943). 본고는 이 중 「등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total institutions)에서의 경험은 그 존재감을 충분히 인정받아 왔다. 「물!」(1933), 「남편 그의 동지」(1933)의 함의를 따질 때 더욱 그랬다. 감옥에서의 경험이 소설로 굴절되는 과정을 분해함으로써, 또 물논쟁을 통과하는 김남천의 논리를 살펴봄으로써 자기고발문학론의 기원을 따져보려는 다수의 시도가 있었다. 서대문형무소는 김남천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지분을 가진 공간으로 주목되었던 것이다.³⁾ 이처럼 경험을 문학으로 용해하는 데 고심했던 작가라는 점이 연구의 착안점이 되어왔음에도 그가 몸소 겪은 총체적 기관이 서대문형무소뿐만이 아니라는 점은 곧잘 간과되었다. 김남천은 경성대화숙이라는 신체제 질서를 상징하는 건조물에서도 역시 '사상 검사의 시선 앞에 생활과 내면을 투명하게 드러내야만 했다는 사실'⁴⁾이 그의 문학에 있어 어떤 질료가 되었느냐는 질문은 아직 제기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상 식민지 말기 김남천을 포위했던 유무형의 위압들은 전시체제의 공고화, 시국의 경색, 신체제기 생활운동 확산, 국어상용화 정책 등의 개념어로 처리되기 쉬웠다. 이는 조선 문인 모두가 마주했던 역사적 조건으로 보편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성은 곧바로 개별 주체의 경험 영역

2) 어빙 고프먼은 저서 『수용소(Asylum)』(1961)를 통해 감옥이나 정신병원과 같은 관리 기구의 주체의 자의각각을 편성하는 논리적 과정을 밝혀낸다. 그는 규율과 감시 속에서 수용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전환하고 관리자의 이해와 요구에 복속되도록 가능하는 공간, 혹은 사회의 모든 기능과 권역을 한 곳에 집중하여 수용자의 삶 전체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시설을 '총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s)'이라 칭한다. 교도소, 감호소, 정신병원, 요양소, 강제수용소 등은 바로 이 총체적 기관의 다양한 양태들이다. 이에 관하여 어빙 고프먼, 심보선 역, 『수용소』, 문학과지성사, 2020, 16-17쪽, 참조.

3) 주로 공장소설로 대표되는 초기 김남천 문학이 자기고발문학론으로 전환되는데 감옥 체험이 미친 영향이 지적되곤 했다. 이를테면 전위로서의 발화 위치를 내성하게 만든 계기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연구는 상당수 존재한다. 이 계열에 드는 연구로 비교적 최근의 것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이진형, 「치안의 유토피아와 정치의 (불)가능성-김남천의 「물!」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7집, 2015; 한수영, 「일신상의 진리, 혹은 신체의 현상학-1930년대 김남천 문학의 방법론적 전회」에 관한 재해석-「남편 그의 동지」와 「물!」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65집, 2021; 이동재, 「김남천 문학의 공간적 표상과 장소성 연구」, 한양대학교박사논문, 2022, 2장.

4) 김남천은 1941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 제1회 <대화숙 사상선도강습회>(일명 대화숙수양회)에 이광수, 최익한, 장덕수, 백남운 등과 더불어 참여했고, 해방까지 대화숙 회원으로서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양회에 관하여 洪宗郁, 「戰時期朝鮮における思想犯統制と大和塾」, 『韓國朝鮮文化研究』 16,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 韓國朝鮮文化研究室, 2017, 참조.

에 진입할 수 없다. 그것은 항상 실정적인(positive) 힘, 혹은 구체적인 매개를 통해서만 개인으로서의 작가 앞에 놓이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한 작가가 지닌 특수성이란 그가 이러한 실정적인 힘을 규정하는 방식, 나아가서는 대결하거나 타협하는 일련의 선택들에 의해 형성된다. 이런 측면에서 1941년 3월 경성대화속에서 개최된 제1회 대화속 사상선도강습회 참가자 명단에 김남천이 이름을 올려놓았다는 점은 새롭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대화속을 매개로 보편적 수사의 외피에 싸여 쉬이 가시화되지 않는 ‘구조적 폭력’⁵⁾의 요체를 그가 어떻게 파악했으며, 나아가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학이 감당할 주제로 변환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논쟁>에서부터 그가 삶과 문학의 관계에 깊이 천착한 문인이라는 사실은, 그리고 그가 통과한 특수한 경험은, 이 사라진 매개자⁶⁾의 속성을 다시 살피려는 시도 속에서 존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이 공간 주목되지 못했던 데엔 몇 가지 이유⁷⁾가 있는데, 먼저 대화속 체제를 주도했던 사상검사 나가사키 유조(長崎祐三)가 해방 직후 관련 문건들을 소각해버렸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⁸⁾ 덕분에 대화속의 실체는 속

5) 슬라보예 지젝의 경우, 폭력을 크게 가시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으로 양분하여 설명한다. 전자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폭력들을 의미하고 후자는 전자를 다만 비이성적인 광기나 악의 분출로 이해하게 만드는 인식론적 지평의 폭력을 의미한다. 후자는 전자를 생산한다. 이에 관하여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2, 25쪽.

6) 슬라보예 지젝이 창안한 이 개념은 대립되는 두 현상이나 개념을 연결 짓고 스스로 소멸되어 자취를 감춤으로써 특정한 질서를 수립하는 매개항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3, 396~399쪽, 참조.

7) 특히 대화속 체제와 김남천 문학의 관계가 주목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김남천이 백남운, 이광수 등과 같이 대화속수양회와 관련된 소회나 감상을 상신(上申)하기 위해 펜을 잡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남천과 대화속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일북하기 전까지 살았던 아파트’(김정동), ‘해방까지 정통에 있는 대화속이란 곳에 연금되어 있었다’(이명재) 등으로 단편적인 사실만 지적되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재, 「작가평전」, 『김남천: 등불 외』, 한국학술정보, 2002, 384쪽; 김정동, 『우리 문학 속 도시기행 2』, 푸른역사, 2005, 125~126쪽.

8) 경성보호관찰소장과 경성대화속장을 겸직했던 나가사키 유조는 사법보호협회 공금 28만 8천여 원에 대한 횡령과 공문서 소각 혐의로 45년 10월 13일 미군에 의해 검거되었다. 그는 동년 11월 19일, 26일 두 차례 담당검사의 심문을 받는 자리에서 공문서 태운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상사의 명령도 있었고 또 중요한 기록 중에는 조선의 지식들의 것이 많았으므로 이들을 위해서 소각한 것입니다.” 이에 검사는 “그 같은 서류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들 지식들의 훌륭한 역사로써 (...) 오히려 고통을 받아오던 지사도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변이 백일하에 명백하게 될 터”라고 꾸짖는다. 이에 관하여 「도마에올른世紀的正義의叛逆者倭寇長崎祐三公判記」, 『建設』, 1945.12, 9~11쪽.

생의 진술이나 증언을 수합하여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자가 직접 언급하지 않는 한 그 세부적인 영향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았다. 또한 바로 그 때문에 대화숙의 특수성과 과장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두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시국대응사상보국연맹의 후신, 혹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상통제 기구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는 대화숙이 사상보국연맹의 7개 지부, 80여 분회, 2,500여 명의 회원을 고스란히 인수했고 사상전력자의 교화, 일본정신의 연성(鍊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었다⁹⁾는 데에 따른 착시효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숙은 사상보국연맹보다 한층 더 치밀하고, 집요하며, 야심만만한 공간기획이었다. 사상보국연맹이 전향자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선인 입김이 센’ 민간 조직에 지나지 않았다면 대화숙은 여전히 재단법인이라는 형태로 민간기구의 모습을 유지하되 보호관찰소 직할 기관으로 규정되었고 신체제 사상운동을 주도하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연출했다. 그곳은 ‘일본정신’을 내면화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련의 의례나 표명들을 국어강습회이라는 계몽 활동과 결합시키는 공간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상 통제의 폭력성을 사회적 선(善)으로 코딩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먼저 대화숙의 위상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 엿볼 수 있겠다. 42년 4월 25일부터 한 달간 개최된 <일본정신박람회>의 경우, ‘7만원의 경비와 5백여 명의 인력을 투여하여 장충단 공원부지 ‘2천여 평’에 11개의 진열관을 설비한 대규모 행사였고 그 주최는 재단법인 경성대화숙이었다.¹⁰⁾ 후원처를 보면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부, 경성재근해군무관부, 국민총력조선연맹,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등 주요 관청이 망라되어 있다. 대화숙은 사상선전과 보급에 있어서 부수적인 지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치기구의 역량을 수렴하고 이를 직접 기획한 사업에 배분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¹¹⁾ 또한 총독부가 대화숙의 사업과 사상 통제 방식에 대해서

9) “황도정신 양양과 내선일체의 심화와 철저를 기하며, 아울러 사상사건 관계자를 선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조직” 沖中守夫, 「신의주대화숙 방문기」,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9』, 선인, 2009, 541쪽.

10) 「精神文化의 大殿堂-明日大望의 日本精神博覽會開幕」, 『每日新報』, 1942.4.25.

11) 永島広紀, 「日本統治下の朝鮮における転向者と思想 「善導」の構圖—思想検事・長崎祐三と「大和塾」

줄곧 주목했던 정황도 포착된다. 43년 9월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의 무조건 항복 선언이 전파되자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총독은 16일 오후 2시, 돌연 경성대화숙 시찰에 나서 전향자의 동요를 살폈다. 숙장 나가사키 유조는 총독의 방문 소식을 듣고 황급히 귀속하여 시설과 사업의 대략을 보고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총독에게 숙내의 다양한 장소를 둘러보게끔 안내하지 않고 사상전력자들이 ‘국어미해자(國語未解者)’—인근지역의 빈곤층 아동—를 상대로 ‘국어강습’을 하고 있는 현장을 선택하여 소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고이소 총독에게 가볍지 않은 ‘감동’을 선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향자의 체제 찬양까지 곁들여지며 한껏 고무된 총독이 즉석에서 일본 신화의 정신과 내선일체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장황하게 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대화숙 체제가 출범부터 일제 패망까지 특정한 영향력을 확보하며 사상전의 선편을 짤 수 있었던 이유는 도장(道場)으로 쓸 일련의 건축물을 갖추고¹³⁾ 여기서 숙생(塾生)—전향자—이 생활 조건 모두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숙의 특성은 나가사키 유조가 관리하던 신의주 보호관찰소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사상범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들을 ‘보호관찰’하는 보호사 가족이 이웃하여 살도록 했고, 숙내에 수산부(授産部)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함으로써 경제적 생활까지 뒷받침하는 등 사상통제 업무를 생활 전반을 포섭하는 공동체적 주거 문화로 업그레이드시켰다.¹⁴⁾ 여기에 더하여 인근지역의 빈곤층 아동과 부녀자를 상대로

의活動を中心に, 『戦時期朝鮮における「新体制」と京城帝国大学』, ゆまに書房, 2011, 272頁.

- 12) 이 장면은 대화숙의 영향력에 뿐만이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 사실도 더불어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첫째, 그곳은 패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을 때 먼저 살펴야 할 ‘악한 고리’였다. 둘째, 그곳은 국어강습과 황도사상 교육을 통해 미래 병력 자원(조선인 빈곤층 아동)을 육성하는 말초적 기구였다. 셋째, 전향자가 그러한 ‘계몽적 선도’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고이소 총독의 대화숙 시찰에 관하여 「須らく神話に生きよ—總督大和塾を訪れ譯々説く」, 『京城日報』, 1943.9.17.
- 13) 경성대화숙의 경우, 경성부 죽점정 3정목 8번지를 도장시설로 썼다. 이광수의 글 「行者」(1941)에 따르면 이곳은 “경성역에서 십수 거리 떨어진 산 중턱에 세워진 벽돌 건물”로 “미국 선교사 경영의 여자신학교 자리”를 “빌린 것”이다. 그러나 감리신학교 대학사에서는 사범당국이 빼라사건을 조작하여 폐교를 유도한 뒤에 강탈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이성림, 『감리교와 신학대학사: 감신대70주년기념 1975』, 한국교육도서출판사, 1977, 217쪽.
- 14) 나가사키 유조와 대화숙 신의주 지부에 관하여 홍종욱, 위의 논문, 2017; 永島広紀, 위의 책, 2011, 5장; 김희훈, 「일제 말 사상전향 관변단체의 조직과 전향논라우가키·미나미 총독 제임기를 중심

무상 국어강습회를 실시하여 민간의 호응까지 끌어냈다. 때문에 나가사키의 모델은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에서 발행하던 『사상회보』(21호)를 통해 소개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힘입어 41년부터 조선 전역에 적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사상범 입장에서 보자면 생활과 내면, 나아가서는 계몽으로 환원할 수 있을 사회적 선(善)이라는 가치까지 절취당한 셈이다.

나가사키의 기획에서 특징적인 대목은 ‘가정’이라는 —개인의 실존적 토대 내지는 재생산 장소랄 수 있는— ‘사적영역’과 생산활동이 일어나는 ‘공적영역’을 압착하여 병영(兵營)과도 같은 시스템 내부로 흡수해버렸다는 점이다. 이때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분할할 권한은 대화숙에 귀속되므로 그 내부에서 형성되는 사유 구성물 일체는 통제의 시각장 안에서 ‘공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만다. 숙생과 이웃해 사는 보호사가 바로 이러한 공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관찰 임무는 숙생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에 보호사는 자연 사상범에게 계속해서 우정을 요구하는 인간미 넘치는 적의 형상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 맺자는 요구가 관철될 때, 그러니까 보호사가 친밀성의 영역 안으로 진입할 때 비로소 숙생이 처한 시공은 사유의 형성물이 충돌과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도, 다양한 이념체와 주체 사이의 간격을 조율할 내면도 허용되지 않는 표면으로서의 세계로 환원된다. 이 세계 속에서 ‘완전한 전향’에 성공한 주체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T군은) 지금은 창씨하고 있으나, (...) 중도 퇴학자로서 입숙한 처음부터 정말로 다케무라 보호사와도 전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약 2주쯤 말없는 행동이 계속됐다. 그 사이에 보호사는 T군과 함께 목욕을 하거나, 식사를 함께 하거나 해서 T군을 자신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도록 힘을 썼다. 그리하여 때로는 새벽까지 보호사 댁에서 마주 앉은 적도 있었다. 보호사의 그러한 인정미가 풍부한 대우는 T군을 하여금 드디어 인간 깊숙이 감추어진 금선(琴線)을 울리게 된 것이었

으로(1930~1942)』, 청구대학교석사논문, 2020, 3장 5절 참조.

다. 혼과 혼이 부딪힌 것이다. 거기에는 조선인이라거나 내지인이라는 응졸한 민족적인 관념은 없었다. 있는 것은 빨가벗은 일개의 인간 대 인간의 존재일 뿐이었다.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내선일체는 이미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T군은 완전히 전향하여 옛날의 고집스럽던 사상을 깨끗이 씻어 내고 말았다. 그리하여 주쿠(塾)의 교단에 서서 이동을 가르치고 있다.¹⁵⁾ (강조 인용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T군의 모습은 고이소 총독이 경성대화숙 시찰에서 목격한 바와 다르지 않다. 그들이 놓인 곳은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치의 내면을 포기함으로써만¹⁶⁾, 공과 사, 적과 동지, 이동과 전쟁, 국어와 계몽 등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합치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참함으로써만 전향을 증명할 수 있는 역설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화숙과 감옥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화숙에서는 감옥처럼 명예와 수난 사이의 등가교환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화숙에서의 고난이란 탕자(蕩子)가 개심했다는 것, 즉 과거와 단절하고 황도사상을 체화했음을 반복적으로 증명하는 일련의 의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아가서는 폭력을 양산하는 구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난'은 외적으로는 일본정신의 세례를 받은 데 감사를 표하는 형태로 발화될 수 있을 뿐이며,¹⁷⁾ 내적으로는 민족 반역과 사상 이반이라는 죄의식과 교환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고통받았다'라는 직접적인 언술로 표출될 수 없는 매듭이기에 다른 어떤 경험들보다 더 문학의 개입이 요구되는 종류의 수난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아이들에게 전장에서 쓰는 쓸모를 가르치는 것으로 강요된 '내면 고백'과 '우정'을 처리하고 있는

15) 沖中守夫, 위의 글, 541쪽.

16) 대화숙 체제의 파시즘적 성격은 황호덕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더 명료하게 분별될 수 있을 것이다. "파시즘이란 내면화하는 무엇이 아니다. 내면을 없애는 활동이야말로 파시즘의 본질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 (…) 해석적 교권을 장악함으로써 비로소 파시즘이 꿈꾸는 공공성은 실현 가능해진다." 황호덕, 「엽서의 제국 전체주의 국가의 공사(公私)개념」, 『벌레와 제국』, 새물결, 2011, 325쪽.

17) 이광수의 「行者」(1941), 「대화숙수양회잡기」(1941), 백남운의 수양회 감상문(京畿道警察部長「大和塾 第1回 思想善導講習會 受講生ノ感想內査ニ關スル件」(京高特秘 第966號)), 1941. 4. 18.) 등은 이러한 범주의 글쓰기에 해당될 것이다.

사상전력자의 형상은 당대 사상문제를 깊이 있게 대면했던 문인들에겐 단순히 곁종을 의미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대화숙은 억압된 것들에 대해, 절취된 것에 대해 다시 사유하라는 문학적 과제를 발신하는 좌표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김남천 문학은 대화숙 체제로부터 번져 나온 문제와 한 호흡을 이루고 있다.

김남천의 대화숙 체험은 한 달여 남짓의 수양회 참여에 불과¹⁸⁾했지만 이 ‘병대생활’이 던져 놓은 문제들은 그의 소설에 분명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등불」(1942.3), 「신의에 대하여」(1943.9) 모두가 자기고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두 작품 모두 액자소설 형식을 취하며 고백된 내용과 작가 김남천 사이에 놓인 존재론적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소설이 소거한 허구적 영역을 보존함으로써 텍스트를 다층적 주체의 분산된 담론 형태로 구성해놓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소설인 「신의에 대하여」에 등장하는 소학시절 스승의 모습은 주쿠(塾) 교단에서 서서 국어를 강습하는 사상전력자의 역상(逆像)으로 보이기도 한다.

본고가 주목하고 있는 「등불」의 경우, 대화숙 체제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가르는 ‘해석적 교권’을 절취함으로써 소설 문학에 벌어지는 문제에 형식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화숙 체제가 편취한 문학적 자유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적 연원을 추적하는 것으로 갈피를 잡겠다.

2. 진정성의 레짐과 전유된 서간체

「등불」은 일 년여 남짓의 침묵 끝에 발표된 작품이다. 공교롭게도 이 소설

18) 이명제가 김남천의 친지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해방 즈음에 그는 정릉에 있는 대화숙에 언급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실로 가정한다고 해도-검토가 필요한 증언이지만- 대화숙 시설이 정릉에 있었다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성에 대화숙 산하 12개의 국어강습소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릉에 있었던 시설이란 아마도 이들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명제, 「작가평전」, 『김남천: 등불 외』, 한국학술정보, 2002, 384쪽.

창작 상의 침묵은 1941년 3월부터 시작된다. 「등불」이 대화숙 체험과의 연결 속에서 고찰되어야 할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등불」과 대화숙 사이의 관련성은 직접적인 서술의 층위에서 구하기 쉽지 않다. 내용의 층위에서는 양자의 얽힘은 초점 인물 장유성이 자신의 촉탁보호사 구니모도 쇼오께와의 만남을 슬회하는 대목에서 “작년 사월 내가 여러 가지 관계로 직장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해 졌을 때, 나는 씨를 죽침정 저택으로 방문했습니다.”¹⁹⁾와 같이 주어져 있을 따름이다. 소설이 임오년(1942)에 작성되었다는 부기를 달아 두었기에 작년이란 1941년을 의미하고 4월은 작가 김남천이 대화숙 수양회에 참여한 기간과 근접한 시간대이다. 춘원의 기록에 따르면 수양회 기간 동안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숙내 국어강습소에서 교사 직분을 수행했다고 되어 있다.²⁰⁾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관계로 직장을 얻는 것이 꼭 필요해졌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니모도의 저택 역시 경성 대화숙이 자리한 죽침정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목을 끌기는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 직접적 서술 속에서 경성대화숙과 「등불」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불투명하고 느슨한 환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문을 그가 어떤 형식적 시도들을 통해 대화숙 체제가 절취한 것들을 복원하려고 노력하는가로 옮겨 놓으면 좀 더 생산적인 논의로 돌입할 수 있다.

「등불」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 역시 작품의 체제 영합적 요소들에 주목하여 비판을 가하는 입장²¹⁾에서 형식적인 측면에 보다 집중하여 국채문학의 증력에서 이탈하는 요소들을 독해하는 쪽²²⁾으로 선회했다. 이진형²³⁾의 경우, 「등불」 속 5개의 에피소드의 주제가 모두 ‘글쓰기’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글쓰기에 대한 소설’로 규정했으며, 손정수²⁴⁾는 「등불」의 서간

19) 김남천, 「등불」, 『국민문학』, 1942. 3, 119쪽.

20) “(아침) 食事が 畢하면 歡談이 있고 그러고는 大和塾國語講習所에서 教授하는 職分을 맡은 이 三四人 外에는 다 職場으로 나갑니다. 그랬다가 午後 六時에 모도 塾으로 모여듭니다.”(팔호는 인용자) 향산광랑, 「대화숙수양회잡기」, 『신시대』, 1941. 4, 39쪽.

21) 이 범주에 드는 연구로는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노상래, 「암흑기 김남천 소설 연구」, 『우리말글』 제37집, 2006.

22) 대표적인 연구로는 서영인, 「김남천의 신체제 인식과 우회적 글쓰기」, 『탈식민주의를 넘어서』, 소명출판, 2006; 정소영, 「김남천의 「등불」에 나타난 서사 전략」,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9집, 2009.

23) 이진형, 「식민지 말기 김남천과 글쓰기의 문제 「등불」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제51집, 2013.

문이 설정하고 있는 수신자들을 김남천이 기왕에 발표한 작품 속에서 찾으려 자기 지시적 상호텍스트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이어받아 등불의 형식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려한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등불」은 4개의 서간문—〈인문사 주간 축하〉〈김군에게 보내는 회신〉〈문우 신형에게 부치는 글〉〈누님 전상서〉—과 1개의 일화—〈축탁 보호사 구니모토 쇼오께씨와 나〉—로 이루어져 있고 사소설, 서간체, 액자구조 등의 형식을 교직해 놓은 텍스트다. 이는 신체제 하의 글쓰기가 당면한 문제, 자기 고백과 진정성에 대한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전략으로 보인다. 먼저 시대상을 살피는 데에서 시작해보자.

식민지시기 문학이 ‘쓰고자 했던 것’과 ‘권장’되었던 것 사이의 위태로운 겹침에 의지하고 있었다면²⁵⁾ 40년을 전후로 그 면적은 더욱더 축소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²⁶⁾ 그리고 이 시기 김남천을 비롯한 몇몇 작가들이 사소설 류에 붓을 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기(自己)’라는 주제 속에서 조선인의 내면을 사찰하려는 통제기구의 의욕과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작가적 욕망이 일시적이거나 타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려오기 때문이다. 실상 사상범이 자신의 신변과 마음가짐 따위를 전사(轉寫)하는 행위는 곧 그들의 내면을 관리 가능한 것으로 환원하는 작업으로서 권장된 것에 속하며, 이는 내면 고백 행위에 수반되는 수행적 효과가 신뢰할 만한 교정 수단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의지한다.²⁷⁾ 대화숙 수양회 일정에 입숙 일주일간의

24) 손정수, 「김남천 등불의 서사구조와 자기 지시적 상호텍스트성의 관계」, 『우리말글』 제77집, 2018.

25) “오늘 우리가 읽는 식민지시기 작품이란 단순하게 쓴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 그것은 ‘쓰고자 했던 것’과 ‘금지/권장’되었던 것 사이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이며, 그 둘 사이에는 매우 복잡한 길항관계가 존재했다.” 한민수, 「1930년대 검열기준의 구성원리와 작동기제」, 『한국어문학연구』 제47집, 2006, 281쪽.

26) 문학잡지 편집자인 문우 신형은 문단 형편을 묻는 장유성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당시 소설가들이 직면하고 있던 문제를 짚어주고 있다. “소극적인 인생태도를 가지고 오든 분은 역시 애초나 실의(失意)나 쇠멸의 정조 같은 것을 그전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어느 때까지 쓸 수 있을런지요. 또 시대적인 감각을 가졌다는 분들은 모두 시국편승이라고 욕먹어 마땅할 천박한 테마로 일시를 호도하는 현상이지요. 가장 딱한 것은 내선일체의 이념을 작품화한다고 곧 내선인간의 애정문제가 결혼 문제를 취급하는 대들니다. 이런 주제는 딱 혼잡합니다. 되려 일상생활에서 출발하는 편이 자연스럽고 시국으로 보아도 좋을 것인데. 그러니까 아직 시대와 겨누어서 하나의 확고한 작품세계를 발견했다고 볼 작가는 없는 셈이지요.” 김남천, 「등불」, 『국민문학』, 1942. 3, 116쪽.

27) “사상검사 도자와 시계오(戶澤重雄)에 따르면, 수기는 검사의 청취서 작성 방법과 표현에 불만을

감상을 적어 숙장에게 제출하는 과업(41.3.18)과 입숙 감상발표회(41.4.8)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서 멀지 않을 것이다.²⁸⁾ 그러나 문제는 사정당국이 그러한 언술을 쉽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시작된다.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수행성이 비단 사법기구의 의도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내면을 고백하는 행위는 곧 고백할 만한 내면을 창안해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다양한 규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내적 통일성을 재조직하려는 시도를 통해 지지되며 바로 그 때문에 입력과 출력, 그 사이를 채우는 연산 절차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유’-칸트적 의미에서의—라는 변인도 끼어들게 된다.²⁹⁾ 자신이 겪어낸 사건들과 현재 자신의 형상 사이의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환원하는 사후적 의례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에 ‘필연성’을 수립한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주체 자신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수양회 간담회에서 한 참가자는 맑스 이론이 생활과 유리된 사상이라고 지적한 뒤에 “참된 일본인이 되려한다. 벌써 일본인이 되었다. 일본인이 안 될 수 없을 만큼 나는 많은 것을 깨쳤다.”라고 소회를 밝힌다. 짧은 순간 ‘되려한다’는 ‘되었다’는 선언으로 교체되고 이어서 수양회의 연성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되려한다’와 ‘되었다’ 사이의 아득한 거리를 도약하게 만들어 준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이라는 규정성과 연성 프로그램이라는 경험 사이를 필연적 관계로 매개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다른 참가자처럼 단순히 이렇게만 말할 수도 있었다. “입숙생활은 일생을 통해 잊지 못하겠다”³⁰⁾라고 말이다.

폼은 피의자가 불평을 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스스로 진술을 쓰도록 펜을 쥐어 주었는데,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자필진술서인 셈이 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확실한 증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수기를 작성하는 피의자의 대다수가 부드러워졌다. 잘 쓴 수기를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피의자조차 있었다.” 강성현, 『한국사상통제기계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15-50』, 서울대 박사논문, 2012, 96쪽.

28) 수양회 일정에 대하여, 홍중욱, 위의 논문, 72쪽, 참조.

29) 슬라보에 지젝은 우리가 칸트의 초월론적 자유를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유란 본래적으로 사후적인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그것은 단순히 불현듯 새로운 인과관계를 시작하는 자유행동이 아니라 어떤 필연의 관계 절차가 나를 결정하게 될 것인가를 승인하는 사후적 행위이다.” 슬라보에 지젝, 김서영 역,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410쪽.

‘조선인은 음흉하다’, ‘잘 속인다’등등 당시 관계(官界)에 퍼져 있던 시책말은 실상 조선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보편성에 대해 지배자가 품고 있는 불안을 뜻할 것이다. 덕분에 사상통제기구의 불안은 자유의 미시적 명멸조차 식별하고 통제하려는 상징적 조치로 보완되었다.³¹⁾ 42년 고이소 총독이 부임한 뒤에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던 ‘도의(道義) 조선의 확립’이라는 표어와 같은 것으로 말이다. 총후를 맡길 만큼 ‘민을만한 조선인’이 되라는 이 요구는 행위와 발화에서 가능한 거짓이나 허구를 배제함으로써 진정성을 취하려는 강박적 태도에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내면과 정신에 부과된 정화의 논리 앞에서 전향문인들이 자기고백의 신뢰성을 제고(提高)할 수 있는 문학적 전략은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작가=서술자>의 문법을 차용하여 텍스트를 작가의 발화로 몰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디에게시스(diegesis) 내부에 이야기의 적극적인 수신자를 설정하여 서술된 내용의 사실 효과를 높여 주는 방편 또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를 소설의 장르나 형식 개념으로 옮겨 오자면 ‘사소설’과 ‘서간체’가 될 것이다. 김남천의 「등불」이 표면적으로 차용하고 형식들이다. 흥미롭게도 이 전략의 효과는 대화숙장 나가사키 유조가 몸소 보여준다.

44년 상재된 『대화숙일기』는 대화숙 국어강습소 교사였던 아사노 시게코(淺野茂子)가 21살 되던 해 폐결핵으로 요절(42.6)하자 그녀의 일기를 모아 출판한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있었던 대화숙 강의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숙장 나가사키 유조는 원고 수습부터 발간까지 도맡아가며 그녀를 “큰일을 도모하다 요절한 한 숭고한 여성”으로 추존했다.³²⁾ 젊은 교사의 사적인 기록물이 공적 텍스트로 취급되어야 할 이유란 물론 그녀가 황국신민화 정책의 옹호자라는 사실에 놓여 있었으나, 텍스트가 거짓이나

30) 「마음은 勿論貌樣도 皇國臣民이 되엿소 -修了式압둔 大和塾生들 體驗談」, 『매일신보』, 1941.4.8.

31) “진정성 레짐이 현실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를 추구하는 자아정치와 ‘진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현실정치가 결합해야 한다.”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9쪽.

32) 윤미란, 「일제말기 식민지배 서사 연구 『대화숙일기(大和塾日記)(1944)』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72집, 2017, 174쪽.

음흉함, 속된 논리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 포획되었다는 점 역시 가볍게 보아 넘기기 힘들다. 나가사키는 녹기연맹 부인부의 츠다 세츠코(津田節子)와 더불어 직접 책의 서문을 썼는데, 얼굴조차 생소했던 그녀의 일기를 다섯 번이나 돌려 읽으면서 20년 만에 눈물을 흘렸다고 기술한다.³³⁾ 심리적 거리가 있는 타인을 위해 드러내는 감정이라기엔 어딘가 과잉되어 있다. 아사노의 총량한 태도가 나가사키라는 인간 깊숙이 감추어진 ‘금선’(琴線)을 건드렸다면, 참여할 권한이 없는 채널에 난입함으로써 내적 진실을 간취했다는 사실이 그 울림을 증폭시키는 형국이 아닐까. 이처럼 그가 공명하고 있는 진정성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직접적인 메시지 교환을 통해 확보될 수 없다. 그것은 의사소통 관계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관찰자의 입장에 설 때만 목격될 수 있는 ‘진실’이다. 그래서 그 역시 자신의 내적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독자를 관찰자 위치에 세워 놓는다. 서간체를 채택함으로써 말이다.

시게코씨.

저는 당신 생전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불러본 일이 없었습니다. 녹기연맹의 아가씨께서 작년 7월부터 대화숙 국어강습회를 도와주셔서, 그중에 아사노 시게코씨라는 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분이 아사노씨지는 몰랐습니다.³⁴⁾

츠다 세츠코의 서문이 독자에게 말을 거는 일반적인 에세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상검사 나가사키는 아사노 시게코를 이름으로 부르며 편지를 시작한다. 이는 독자를 수신자의 위치에서 의도적인 배제하는 제스처이

33)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께 무리하게 부탁을 드려 일기를 빌려왔습니다. 저는 네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저를 반도인이라고 믿어버려, ‘내지인에 뒤지지 않는 애국자다, 존경해야 할 사람이다, 반도의 히틀러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었습니다. 후에 제가 내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곳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뻐합니다. (...) 낮 동안은 아이나 아내 앞에서 울 수 없기에, 집안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려, 밤 두 시경 다섯 번 일기를 반복해서 읽고는 울었습니다. 올해 마흔두 살이 되는 이 남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이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淺野茂子, 綠旗聯盟 編, 『大和塾日記』, 興亞文化出版株式會社, 1944, 8-9쪽.

34) 淺野茂子, 綠旗聯盟 編, 『大和塾日記』, 興亞文化出版株式會社, 1944, 7頁.

다. 서간체로 수립된 의사소통 채널에서 메시지의 사실 효과를 발화자의 진정성으로 환원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실례를 무릅쓰며 아사노에게 내보인 친밀감의 진정한 수신자는 글을 읽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私) 매체로서의 성격을 지닌 편지”를 “공적(公的) 형식으로 발표했을 때 창출되는 효과”를 십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³⁵⁾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김남천의 「등불」에 사용된 서간체는 그가 실존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반복해서 손을 뺀 고유한 스타일³⁶⁾로서 선택된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감시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관찰자의 위치’를 창출하는 형식이기에 전유(專有 appropriation)의 맥락에서 선택된 것이 아닐까. 이진형의 지적대로 「등불」의 서간체는 일종의 미달태로 보인다.³⁷⁾ 서술자의 내적 독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마저도 수신자로부터 그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기에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등불」의 서간체는 수신자를 표지하여 이차적 의사소통 관계망을 설정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자를 담화 바깥에 세워두기 위해 도입된 의태(擬態)라는 뜻이다.

3. 액자구조의 연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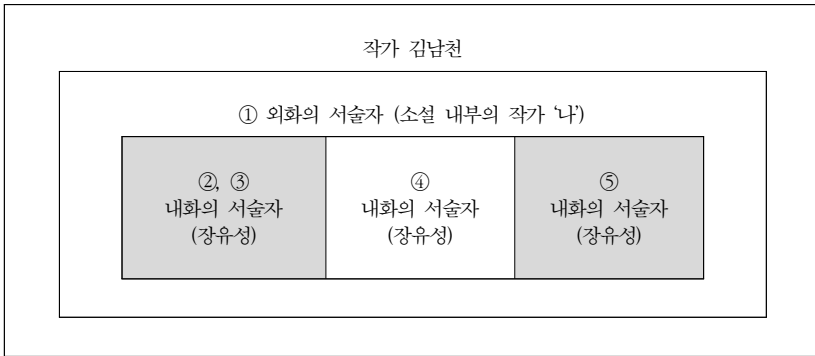
「등불」에 있어 서간체보다 더 본질적인 요소는 서간문을 병렬함으로써 성립되는 액자구조일 것이다. 전술했듯이 「등불」은 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네 번째 에피소드는 수신자가 설정되지 않은 일화이다. 첫 번째 편지(①<인문사 주간 축하>)는 나머지 네 개의 에피소드의 메타적 위치에서 서술되고 있기에 한 겹의 액자들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초점인물 장유

35) 정소영, 「김남천 「등불」에 나타난 서사 전략 서간체의 ‘재사용’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9집, 2009, 355쪽.

36) 장성규, 「김남천 소설의 서술 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장, 참조.

37) 이진형, 위의 논문, 402쪽.

성의 서술로 진행되는 3개의 서간문(②<김군에게 보내는 회신> ③<문우 신형에게 부치는 글> ⑤<누님 전상서>)은 수신자가 없는 1개의 일화(④<촉탁 보호사 구니모토 쇼오께씨와 나>)를 또 둘러싸고 있어 다시 한 번 액자들로 기능하고 있다. 각각의 서신과 에피소드를 구분하기 쉽도록 번호를 붙여 텍스트와 그 환경 사이의 구조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이중의 겹으로 이뤄진 액자구조는 이 소설을 둘러싼 세 층위의 전환사(작가 김남천, 첫 편지(<인문사 주간 축하>의 '나', 장유성)가 미묘한 유격(裕隔)을 보존하도록 만든다. '인문사 주간 축하'라는 말로 시작되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 제시된 서사 밖의 발화자는 소설을 쓰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시는 선생과의 약속을 어길까고도 생각했으나 집필 복구에 이르기까지의 선생의 여러 가지 노력과 우정에 새로히 용기와 책임을 느껴, 지금 다음과 같은 구김 찢 있는 이상한 기록을 꾸며놓아 보았습니다. 소설인지 아닌지는 나도 딱이 단언키 힘드오나, 본래 소설은 시나 수필이나 논문이니 희곡이 아닌 모든 것 우에 붙이는 허물없는 이름 같에서, 문단의 습속에 숨어 이것도 소설 축에 넣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여기 쓰인 기록은 적어도 절반은 사실이오, 그 나머지는 인물이며 사건이 며가 전혀 허구요, 일인칭으로 된 주인공, 장유성도 필자와 비슷한 인물이라는 것

이 타당하리만치,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섞이었다는, 그것입니다.³⁸⁾

여기서 ‘나’는 일견 작가 김남천으로 간주되지만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지표는 소설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다른 서술자로 교체될 뿐이다. 외견상 도입한 사소설의 문법은 덕분에 해체되어 버리며 일체의 서사가 소설의 허구적 세계로 다시 안착하게 된다. 작가 김남천과 장유성의 유사성이 강하게 의식되는 대목에서도 첫 번째 편지 덕분에 둘 간의 차이는 유지될 수 있다. 독자에게 ‘진정성’을 포획할 장소는 할당해주고, 내러티브 자아의 단일성을 해체해버린 것이다. 이때 지역봉공을 긍정하는 언사, 촉탁 보호사에게 드러내는 경외감, 가족을 위해 삶을 희생하겠다는 다짐 등 관변 담론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련의 발화들은 발화 위치의 동일성에 의해 지지받지 못한다. 그것은 장유성이 동의했지만 소설 속 ‘나’는 인준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작가 김남천은 수긍하지만 장유성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 그런 말뭉치가 된다. 「등불」의 도입부에서 언급된 ‘절반의 소설’은 이 층위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진정성의 레짐이 기각하려는 ‘허구적 상상력’은 액자구조를 통해 명맥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등불」에서 액자형식은 논리적으로 서간체에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내면의 투명성과 진정성에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비대해질 때, 소설의 입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술했듯이 이러한 압력은 소설을 사소설이라는 소설 이하의 형식으로 몰아가고 종국엔 문학과 사회의 접면이 소실되도록 만든다. 당연하게도 자기의 내면을 ‘거짓’없이 개방할 수 있는 담화 형식이란 적어도 근대인에게 존재할 수 없다. 근대적 주체는 소외된 주체이기 때문이다. 타인들로부터도, 심지어 ‘나’로부터도 충만한 동일성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를 완성해나가야 한다. 루카치의 진단과 같이 ‘허구’는 이처럼 삶의 ‘본질’이 은폐된 근대사회의 특수성에 대처하는 노블(Novel)의 무기다.³⁹⁾ 소설의 예술적 효과는 허구를 기반으로 진실을 달성하

38) 김남천, 「등불」, 『국민문학』, 1942.3, 106~107쪽.

39) 김혜연, 「소설 장르의 허구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1집, 2004, 54~55쪽, 참조.

려는 방향성을 떨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가는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균형을 밀어낼 수 있고, 소설이 펼쳐내는 가상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기반으로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받아 안을 넓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허구의 공간은 나아가 독자와 작가의 상상력이 합류하며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칸트적 의미의 공공성을 지지해주기도 한다. 여기에 소설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놓여 있을 것이다. 김남천 역시 이러한 인식 위에 서 있다.

우리는 항상 ‘소설이란 무엇이나’ 하는 물음에 ‘그것은 헛소리로 된 참말이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소설이 헛소리로 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전부 헛소리만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사소설 신변소설 심경소설의 류는 헛소리보다는 실상으로 있는 일이 더 많다. (...) 완전한 헛소리만 가지고 소설을 꾸미기를 싫어했고 또 그다지 그 방면에 능수가 아니었던 유씨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소설다운 소설 즉 헛소리만으로 된 소설을 꾸미려고 하였다는 데 나는 의외와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하고나 하면 자기의 작가적 완성을 결정하려 하지 않고 먼 오늘의 장래에다 기약을 두는 사람이라면 헛소리만으로 소설을 꾸며서 참말에 도달하는 기술과 역량과 현실의 개괄 방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도대체 한 사람분의 소설가다운 소설가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⁴⁰⁾

김남천은 유진오의 「마차」를 상찬하며 그가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음에 기뻐한다. ‘일정한 고정된 세계를 가지지 않았거나 혹은 가지지 않으려고 해오는 작가’로서 그에게 동류의식을 느끼고 있기에 유진오의 문학이 보여준 허구적 상상력의 개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일게다. 사실 김남천이 액자 구조에 기대어 ‘헛소리로 된 참말’을 시도한 사례는 「등불」 외에도 존재한다. 작가 자신과 비견되는 인물을 내세워 소설과 독자 사이의 소통 구조를 교란함으로써 형식적 긴장을 부여한 비는 수다하다. 「물!」, 「이리」, 「녹성당」, 「어

40) 김남천, 「한화수제 -소설다운 것 2」, 『매일신보』, 1941. 4. 18.

편 아침 (或の朝)」, 「신의에 대하여」 등이 그 예시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녹성당」은 특히 더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텍스트이다. 「등불」과 같이 서간체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도입부 역시 작가 김남천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이어지는 서사의 액자틀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¹⁾

김남천이라고 한다면, 응, 바로 이 <녹성당>이라는 단편 소설을 쓰고 앉았는 이 화상 말인가 하고 적어도 이 글을 읽는 이루선, 그 이름만이라도 모른다군 안 할 테지만, 인제 다시 박성운이라는 석 짜를 내가 써보았자, 그게 어이 된 성명인지를 아는 이는 꺾이나 드를 것이다. 드덜기 박 짜, 이를 성짜, 구름 운짜, 한문짜루 쓰면 '朴成雲', 이래도 모르겠느냐고 물어도, 역시 '응, 그 사람, 참 김남천이와 한께 한 육칠년, 아니 한 십년 전인가 더러 소설 비슷한 걸 쓰든 사람 아닌가고,⁴²⁾

「등불」에서는 첫 번째 편지의 '나'가 작가 김남천이라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하면 소설의 주요 서사와 존재론적으로 분리된 자리에서 발화하는 형식으로 액자 구조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글을 쓰게 된 경위를 밝히며 다소 모더니즘 작법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성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등불」의 형식적 특성의 연원을 「녹성당」에서 구할 때, 다시금 제기되는 질문은 「녹성당」의 액자구조는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는 것이다. 액자형식을 활용해서 소설 고유의 허구적 성격을 확보하려 했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天龍之介)의 문학을 살필 필요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기해보고 싶다.

고보시절에 내가 굉장히 경도했든 작가가 단 한 분 있다. 어떠한 근거가 있었든지, 전혀 우연한 일이었든지 간에, 그는 고, 芥天龍之介다. 그러나 내가 지금 쓰고

41) 손정수 역시 「등불」과 「녹성당」의 형식적 유사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손정수, 위의 논문, 288쪽.

42) 김남천, 정호웅 편, 「녹성당」, 『김남천 작품집』, 2008, 23쪽.

있는 작품의 어느 구석에, 그의 영향이 들어 있는지는 나조차 알 수 없다. 중학 때에 쓴 작품에는 개천의 것을 모방한 것이 대단히 많았고, 그의 저서의 장정화가, 小穴隆一氏를 본받아, 제법 내 원고를 매어 떡꾸을 제작했던 적도 결코 한 두 번이 아니었다. (….) 고-리카 같은 분의 영향은 가장 커서야 할 터인데 불구하고 나는 그의 작품에서 보다는, 그의 문학론에서 더 많이 영양소를 섭취했다는 것이, 부끄러우나 진영에 가까운 사실이다.⁴³⁾

「녹성당」의 형식적 특수성이 어떤 참조항을 통해 성립될 수 있었는지를 따지자면 다양한 문인들의 영향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위의 평문과 「녹성당」(1939.3)의 발표 시점이 정확히 겹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면 「녹성당」은 아쿠타가와를 의식하며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녹성당」이 박태원이나 이상 등의 모더니즘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논의도 아쿠타가와와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도 박태원도 아쿠타가와와의 문학에서 ‘영양소를 섭취했다’는 점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지적이기에 그러하다.⁴⁴⁾ 더구나 이미 단편 「장날」과 「덤불 속(藪の中)」의 연락관계가 구체적으로 논증된 바 있다.⁴⁵⁾ 흥미롭게도 「녹성당」(1939) 역시 그 형식적 측면에서 아쿠타가와와의 「개화의 살인」(1918)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가) 박성운이는 소학 칠 년에 그러므로 서력으로 따지면 일천구백삼십이년, 그 전후해서 그러니까 다시 또 한번 따지자면 경향 문학인가 프로문학인가, 한참 성할 때 신진 작가로 소설을 쓰던 사람이다. 그러나 곧 이 소설과는 별반 관계없는

43) 김남천, 「청년 소로호호」, 『조광』, 1939.3, 261쪽.

44) 이러한 관점에서 제출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일별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정석, 「아쿠타가와를 매개로 본 이상과 박태원의 문학-「툽니바퀴」와 「적멸」, 「지도의 암실」의 상관성, 그리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한중인문학연구』 제28집, 2009; 김수안, 「자살의 자격, 소설 쓰기 방법으로서의 종생-아쿠타가와와의 「어느 옛 벗에게 보내는 수기」를 통한 이상의 「종생기」제독」, 『비교문학』 제28집, 2022; 김미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경유해 읽은 박태원 문학 「덤불 속」과 「성탄제」를 중심으로 본 소설의 실현」, 『어문논총』 제98집, 2023.

45) 박진숙, 「김남천의 『장날』 연구-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덤불 속」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6집, 2012; 장성규, 「1930년대 후반기 소설 장르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132-135쪽.

사건으로 (…)얼마간 영오의 생활을 했고, 그 뒤는 평양으로 가서 장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장질부사로 저의 시골서 세상을 떠났다. (…) 지금 중학에 다니는 그의 동생이 (…)편지와 함께 박성운 군의 유고 한편을 보낸 것이 있다. 이 유고가 말하자면 '녹성당'이라는 제목을 붙여 놓은 글인데, 박군이 소설을 쓰던 이인 만큼, 이 수기는 그대로 소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글이었다. 소상하니 읽어보아, 어디 발표라도 할까하고 생각해 보니 꺼릴 곳이 여간 많은 게 아니다. 이 즈음 출판 조건도 달라졌고, 또 발표를 목적하고 쓴 글이 아니라, 그대로 어떤 하루의 생활을 그런 수기(手記)인 때문에, 도저히 아는 이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글이다. (…) 부득이 원고는 원고대로 간직해 두기도 하고, 내가 소설을 직업으로 하는 게 탈바가지라, 그 원고를 뜯고 고쳐서 이제 소설을 한 편 만들었다.⁴⁶⁾ (강조 인용자)

(나) 아래에 게재한 것은 최근에 내가 혼다 자작(가명)에게 빌려 본, 고 기타바타 케 이이치로(北畠義一郎), <가명> 박사의 유서이다. 기타바타케 박사의 실명을 기꺼이 밝힌다 할지라도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자신도 혼다 자작에게 친자하여 명치초기의 자질구레한 일화를 듣고 나서야 처음으로 박사의 이름을 듣는 기회를 얻었다. 그의 인물 됴됨이는 아래의 유서에 의해서도 약간의 설명을 들을 수 있겠지만, 더구나 두세 가지 내가 측문한 사실을 덧붙이자면 박사는 당시 내과 전문의로서 유명함과 동시에 연극 개량에 관해서도 어떤 급진적 의견을 갖고 있는 일종의 연극 통이었다고 한다. (…)물론 나는 유서를 일반에게 발표하는 데 있어 몇 줄의 개찬을 하였다. 예를 들면 당시 아직 수작(授爵) 제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칭호에 따라 혼다 자작 또는 부인 등의 이름을 사용한 것들이다. 단, 문장의 표현에 이르러서는 거의 원문의 표현을 모조리 그대로 베껴 썼다고 해도 좋다.⁴⁷⁾ (강조 인용자)

상기에 인용된 부분에서 두 소설 모두 외화의 서술자는 자신이 유고를 입

46) 김남천, 정호웅 편, 위의 책, 23쪽.

47)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조사옥 편, 「개화의 살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전집 2』, 제이앤씨, 2010, 177~178쪽.

수한 경위를 밝히고, 자신이 원본에 얼마나 수정을 가했는지를 기술한다. 그 뒤 이어서 서술되는 내용은 유서의 주인의 발화라고 명기한다. 프리츠 로케만의 액자소설 분류법⁴⁸⁾에 따르면 위의 글들은 ‘인증형 액자형식’에 해당한다. 이는 “스스로 서술 표상이 되고 일인칭으로 소개되면서, 경험한 것이나 들은 것 또는 발견된 원고 따위와 같은 나의 이야기를 보증하는 형태”⁴⁹⁾를 뜻한다. 때문에 두 소설의 유사성은 형식의 보편성 범주에서 확인되는 것이라고 보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시하라(梶原修)의 논의를 참고하자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액자소설을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며 김남천이 대면한 상황과의 유의미한 연결이 확보된다.

가시하라는 아쿠타가와와의 중기 문학의 특질로 액자소설을 거론하며 「개화의 살인」(1918)과 「봉교인의 죽음」(1918) 등을 그 예로 제시한다.⁵⁰⁾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작품화하는 데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아쿠타가와가 소설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액자소설에 집필에 몰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를 서술자와 등치시켜 이해하는 당대의 독서 관습을 파쇄하기 위해 액자형식에 의지했다는 분석이다.

(...) 외적 사정을 살펴보면 대정시대의 저널리즘의 발달도 그것을(액자소설) 뒤에서 밀었다고 생각한다. 아쿠타가와 전집을 보고 느낀 것은 소설 등의 창작 외의 문장이 많음이다. 수필이나 감상에서 설문의 회답까지 여러갈래에 걸쳐서 작가는 현실의 몸으로 독자 앞에 너무나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허구로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바짝 말라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특별히 픽션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액자소설을 쓴 이유를 거기에서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⁵¹⁾ (강조

48) 프리츠 로케만이 제시한 액자 소설의 종류는 다음 여섯 가지다. “① 순환적 액자, ② 단일액자, ③ 목적액자, ④ 인증적 액자, ⑤ 폐쇄적 액자, ⑥ 개방적 액자” 이재선, 「액자소설론」, 『한국문학의 원근법』, 민음사, 1996, 79쪽.

49) 이재선, 위의 책, 80쪽.

50) 윤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액자소설 연구-『사이고 다카모리』 『개화의 살인』 『봉교인의 죽음』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6집, 2013, 351쪽.

51) 윤일, 위의 논문, 351쪽, 재인용; 梶原修, 『私という方法-フィクションとしての私小説』, 笠間書院,

인용자)

당시 일본문단에서 쓰이던 사소설이 그 주된 수신자를 길드-내-존재로 압축하기 위해 허구라는 소설 고유의 영역을 내던졌던 바를 참조한다면 아쿠타가와가 액자소설을 쓴 사정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가 액자소설을 통해 허구를 취한 것은 곧 문인들의 엘리트 의식과의 절연, 독자와 새로운 의사소통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단절로 시도된 것이다. 반면 김남천이 속한 시공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소설을 허구로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바짝 말라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춘원 이광수는 자진해서 들어간 대화숙 일실(一室)에서 수필 「행자(行者)」(1941)를 탈고했다. 자서전을 써보라는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의 청탁을 받아들여 그를 수신자로 삼은 서간문을 초한 것이다. 고바야시가 전쟁과 문학의 구별을 주장했던 바를 상기한다면 그가 사정당국과는 썩 다른 의도에서 원고를 부탁했다는 점을 춘원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일본 사소설 전통 — ‘충분히 사회화된 나’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일천한 근대 일본인의 심적 구조⁵²⁾ — 바깥에 놓여 있는 피식민지 계몽주의자의 ‘자기(自己)’를 확인하고 싶다는 비평가적 탐구열의 일환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춘원은 그의 ‘의도’엔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적는다.

小林선생.

미안하오. 모처럼의 호의를 저버렸기에 진심으로 할 말 없소. 실은, 그대로부터 ‘당신의 자서전을 써보시라.’는 권유를 받았을 땐 황송했으나 그 말씀에 이끌려 ‘그 래볼까요라고 대답은 했지요. 이는 단지 인사치레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쓰지 않는 편이 오히려 예법에 맞는다고 여겨왔소. 그런데 두 번이나 독촉을 받자 아차 했지요. 게다가 진짜 일본인이라는 사실, 일본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설령 술자리의 일시적 헛소리에도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사실에 정신이 들었기 때문이요. 사회

2012, 307頁.

52) 고바야시 히데오, 유은경 역, 「사소설론」, 『고바야시 히데오 평론집』, 소화, 2003, 87-89쪽, 참조.

하오. 동시에 일본정신의 일단을 가르쳐준 점에 감사드립니다.

(…)

나는 시방 경성 대화숙의 한 방에서 이 글을 쓰고 있소. 대화숙이란 조선인에게 일본정신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무국 관계 기관으로 사상보국연맹을 개칭한 것이요, 사상보국연맹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민족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로써 형사가 아직 남은 자나 기소 유예된 자들에게 일본정신을 주입시키는 곳입니다. 3-4천 명쯤 된다고 하오. 나는 아직 이 단체의 회원으로 된 것은 아니요, 시방 상고중이어서 아직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요, 다행히 무죄로 되면 대화숙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으나, 불행히도 유죄로 되는 날엔 나쁜 짓을 하다 잡혀 처벌받은 시기가 와서 나라에 봉사할 수 없는 형편. 대화숙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요. 그렇다면 어째서 나는 지금부터 대화숙 일실에 와 있는가, 그것은 단지 숙 당국의 호의에서입니다. 아직 숙에는 숙생이 한 사람도 없기에 빈방을 내 명상과 저술을 위해 빌려준 것에 지나지 않소.⁵³⁾

이를 두고 그가 놓여 있던 공간 자체가 입을 벌린 것이라 말할 수 없을까. 춘원은 얼마 뒤 자신이 편지의 서두에 적어놓은 대로 ‘일본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미덕’을 열심히 연성하게 된다. 그리곤 수양회 간담회 자리에서 “마음뿐 아니라 모양까지 황국신민이 되었다”⁵⁴⁾고 고백한다. 춘원도, 나가사키 유조를 비롯한 관리자들도 진정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향이라는 선택을 추동하는 동기나 믿음 등의 자질은 흔히 생각되듯이 내면에 자리한 것이 아니라 ‘밖’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⁵⁵⁾ 대화

53) 이광수, 「행자(行者)」, 김윤식 편역, 『이광수의 일어 창작 및 산문선』, 역락, 2007, 97~99쪽; 香山光郎(李光洙), 「行者」, 『文學界』, 1941.3.

54)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활용된 고백, ‘마음은 물론 모양도 황국신민이 되었소’라는 말은 춘원의 것으로 판단된다. 수양회를 열흘만 참여한 참가자는 춘원 외에 없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勿論模樣도 皇國臣民이 되었소 -修了式압둔 大和塾生들 體驗談」, 『매일신보』, 1941.4.8.

55)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는 불신자의 질문에 파스칼은 믿는 자를 그대로 따라하라고 조언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이미 믿고 있었다는 듯이 행했고, 성수를 받고 미사를 올렸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저절로 믿게 되고 훨씬 더 유순해질 것이다.” 파스칼의 조언은 의지가 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상식적 도식에 균열을 내며, 믿음의 위치를 ‘안’이 아닌 ‘밖’으로 제시한다. 이에 관하여,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77쪽.

속이 ‘권장’하는 끊임없는 고백 의례와 빈틈없는 타임 테이블은 ‘뭉’ (모양)을 변화시킨다. 이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모방하게 되면 파스칼의 말대로 ‘저절로 믿게 되고 훨씬 더 유순해질 것이다’. 경성대화속은 전향자들로 하여금 ‘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물리적 기구였다는 점이 다시금 선명해지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등불」의 액자구조는 적어도 문학의 영역에는 아직 ‘안’이 남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의 흔적에 값할 것이다. 그가 노스텔지어에 의지해서 고보 시절 문학 스승의 그림자를 더듬어 낸 것으로 보기에 더욱 그렇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남천의 「등불」은 사상전력자의 모든 발화가 공적인 것, 투명한 것으로 치환되길 강요하는 대화속 체제의 ‘계몽적 의지’ 아래 발화되었다. 그러나 내적 자율성과 허구적 상상력의 위축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내놓은 ‘구김살 있는 이상한 기록’이란 체제에 편입되려는 소시민적 열망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랬다면 굳이 ‘구김살’에 해당하는 중층구조를 도입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평온한 삶에의 욕망과 자유를 구해내려는 작가적 윤리 사이의 팽팽한 긴장의 기록일 수 있다. 이 긴장은 전술했듯이 비가시적인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신’(大和魂)의 절대성을 상대화하는 어떤 종류의 언술도 자유롭게 유통될 수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담론장의 폐쇄성 앞에서 어떤 문학적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기록은 42년 10월에 남긴 한 독후감이다. 그는 의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편의 소설, 『아니린』과 『의사기운』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이 소설의 독자는 그러나 『아니린』의 독후감이 그러하듯이 소설의 결구에 대해

서 운위한다든가 로맨스나 에피소드의 수량에 대해서 열거한다든가 하는 번다스러운 감상을 피하려고 하지는 안할 것이다. 다만 고귀하고 희망적이고 예지적인 순간을 가지고져 할때에 임의의 일이절을 번독함으로써 독자는 영혼과 정신의 기분 체험에 부드쳐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고요고 따스하게 순화되는 것을 느낌에 만족할 것이다. 이리하여 필자는 지난한 해설기에 하나의 간단한 문학적 결론을 가지고져 한다. 애국사상, 애국심, 애국혼(기타 어떠한 관념이던간)의 문학적 표현의 성공률은 문학적 형식과 표현양식의 순수도의 노피에 정비례한다는 초보적인 상식의 상기가 즉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가지로 센칭가와 카뮈사가 민족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가졌는지 몰오되 이국의 독자들이 느끼는 비는 『아니린』은 도저히 『의사기온』의 류가 될 수는 업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다시금 문학의 문제에서는 무엇보다도 형식이 사상을 결정한다는 상식이 되푸리되어야 하는 것이다.⁵⁶⁾ (강조 인용자)

남천은 『의사기온』의 문학적 성취를 고평한다. 전자가 독일인 주인공을 내세워 영국에 대한 독일의 우월감을 드러냄으로써 표면적 층위에서 애국사상을 운위하고 있다면 후자는 작품의 주제를 흑독한 운명 앞에 놓인 사람들의 실존적 선택 내부에서 모색되는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유였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결연히 생명을 출산하길 선택한 하녀 에메렌츠, 그녀의 죽음을 바라보는 의사 기온의 시선의 교차 속에서 절망과 희망, 성과 속, 예술과 일상, 생명과 죽음의 고정된 자리는 순환 관계를 형성한다. 에메렌츠의 생물학적 죽음이 그대로 1차 세계대전의 전화(戰禍)가 남긴 절망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문학적 표현의 성공률은 문학적 형식과 표현양식의 순수도의 노피에 정비례한다’는 언급은 곧, 텍스트에 선험적 조건으로 주어진 이념적 주장들에 쉽사리 공명하지 않는 형식적 안배가 곧 문학적 자유를 담보한다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 주는 말에 가까울 것이다.⁵⁷⁾ 또한 「등불」이 지니고 있는 형식상의 자질들이 특정

56) 김남천, 「두 의사의 소설」, 『매일신보』, 1942.10.20.

57) 손정수, 「김남천의 「어느 아침(或る朝)」을 둘러싼 상호텍스트의 층위들」, 『어문학』 제140집, 2018, 184쪽.

한 지향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만들어 주는 언급이기도 하다.

본고는 앞서 「등불」의 서간체와 사소설적 구도가 체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점이라면, 액자구조는 이러한 인력에서 이탈하려는 문학적 자유의 흔적이 라고 분석했다. 이 두 가지의 형식적 특성은 한편으로는 소설 텍스트 내용을 상징계적 질서 내부에 머물도록 만드는 구심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담론 환경의 압력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으로 작용하며 텍스트의 의미를 특권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해석 위치를 교란하는 힘으로 긴장하고 있다. 이처럼 서사의 유기적 결합을 방해하고, 해석적 침습을 해체하는 작법, 특히 텍스트 내부에 메타적 위치를 도입함으로써 또 이를 통해 액자구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분화된 서술 자아의 양상은 창작기법으로서의 모더니즘에 근접해 있다. 물론 김남천이 「리얼리즘」이라는 기표를 유연하게 이해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등불」의 이러한 특성은 그의 문학적 기초와 상충되는 자질은 아닐 것이다.⁵⁸⁾ 오히려 리얼리즘이 봉쇄된 환경⁵⁹⁾에서 현실을 포획하기 위해 리얼리즘이 취할 수 있는 표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남천의 문학은 식민지 말기에 이르러서도 본질적인 전환이라고 할 만한 계기를 맞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처음으로 카프 조직 밖에서 자신의 창작방법론을 구상할 때 내놓은 자기고발의 윤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에 대한 오마주 등은 이미 대화숙 체험 이전부터 그의 문학세계를 지지해오던 중요한 요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화숙 체

58) 김남천은 이미 40년 어름에 단편소설을 실험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김남천, 「관찰 문학소론」, 『인문평론』, 1940.4; 『전집』1, 591쪽.)가 있고, 「이리」 등에서 보이는 프랑스 영화의 시적 리얼리즘의 영향,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복수초점화 기법 등을 적용한 「장날」 등의 작품이 있다. 그가 「리얼리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근거는 적지 않다.

59) 당시 조선문단과 국책문학의 요구를 최전선에서 조율해야만 했던 최재서는 국민문학을 주제로 실시한 한 강연에서 리얼리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작품 속에 어두운 면의 묘사가 많고, 실로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작가의 의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리얼리즘의 타성 때문입니다. 유품론적 시각으로 보는 방식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적인 해석은 사양합니다. -거기서 도피할 길이 없는 리얼리즘 문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에도 개인적인 불행이나 사회적인 결합,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헤쳐서 확대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전시에 국민 도덕상으로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그것이야말로 세기말 염세주의의 전염일 뿐입니다.” 최재서, 「국민문학의 입장」, 『전환기의 조선문학』, 영남대출판부, 2007, 101-102쪽.

제의 공간기획은 김남천 문학에 있어 어떤 변화를 야기했다기보다는 ‘반복’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본고가 중요하다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시대적 격랑 속에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에너지도 만만치 않기에 그렇다. 이 시기 김남천 문학이 다시금 자기고발 문학을 반복하고 있는 장면이란 급류를 거스르는 물고기가 온 힘을 쓰고도 한 자리에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이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숙 체제란, 역설적으로 김남천이 스스로 수립한 문학의 밑그림을 다시 확인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전술했듯이 그동안 김남천이 경험한 ‘총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s)이 비단 서대문형무소만이 아니었다는 점은 간과되어 왔다. 경성대화숙과 대화숙 체제는 어찌보면 그가 자신이 세운 문학의 본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만든 압력이었고, 또 제값을 해낸 뒤에 소실점으로 남은 희미한 흔적 같은 것이다. 이‘사라진 매개자’의 속성을 훑어볼 때, 식민지 말기 김남천 문학의 저류를 형성하는 자유에의 지향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건설』, 『경성일보』, 『국민문학』, 『매일신보』, 『신시대』, 『조광』

김남천, 「녹성당」, 『문장』, 1939, 3.

_____, 「청년 소로흡호」, 『조광』, 1939, 3.

_____, 「한화수제 -소설다운 것 2」, 『매일신보』, 1941. 4. 18.

_____, 「등불」, 『국민문학』, 1942, 3.

이광수, 「대화숙수양회집기」, 『신시대』, 1941. 4.

_____, 「행자」, 김윤식 편역, 『이광수의 일어 창작 및 산문선』, 역락, 2007.

이성림, 『감리교와 신학대학사: 감신대70주년기념 1975』, 한국교육도서출판사, 1977.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조사옥 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전집 2』, 제이앤씨, 2010.

淺野茂子, 綠旗聯盟 編, 『大和塾日記』, 興亞文化出版株式會社, 1944.

2. 단행본

고바야시 히데오, 유은경 역, 『고바야시 히데오 평론집』, 소화, 2003.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김정동, 『우리 문학 속 도시기행 2』, 푸른역사, 2005.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_____,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3.

_____, 김서영 역,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_____, 이현우 외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2.

어빙 고프먼, 심보선 역, 『수용소』, 문학과지성사, 2020.

이명재, 『김남천: 등불 외』, 한국학술정보, 2002.

이재선, 『한국문학의 원근법』, 민음사, 1996.

최재서, 『전환기의 조선문학』, 영남대출판부, 2007.

황호덕, 『벌레와 제국』, 새물결, 2011.

櫻原修, 『私という方法-フィクションとしての私小説』, 笠間書院, 2012.

永島広紀, 『戦時朝鮮における「新体制」と京城帝国大学』, ゆまに書房, 2011.

3. 논문

강성현, 「한국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15-50」, 서울대박사논문, 2012.

김미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경유해 읽은 박태원 문학-「등불 속」과 「성탄제」를 중심으로 본 소설의 실험」, 『어문논총』 제98집, 2023.

김수안, 「자살의 자격, 소설 쓰기 방법으로서의 증생-아쿠타가와와의 「어느 옛 벗에게 보내는 수기」를 통한 이상의 「증생기」제독」, 『비교문학』 제28집, 2022.

- 김혜연, 「소설 장르의 허구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1집, 2004.
- 김희훈, 「일제 말 사상전향 관변단체의 조직과 전향논리-우가키·미나미 총독 재임기를 중심으로(1930~1942)」, 청주대학교석사논문, 2020.
- 노상래, 「암흑기 김남천 소설 연구」, 『우리말글』 제37집, 2006.
- 박진숙, 「김남천의 『장날』 연구-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덤불 속」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6집, 2012.
- 서영인, 「김남천의 신체적 인식과 우회적 글쓰기」, 『탈식민주의를 넘어서』, 소명출판, 2006.
- 손정수, 「김남천 등불의 서사구조와 자기 지시적 상호텍스트성의 관계」, 『우리말글』 제77집, 2018.
- _____, 「김남천의 「어느 아침(或る朝)」을 둘러싼 상호텍스트의 층위들」, 『어문학』 제140집, 2018.
- 윤미란, 「일제말기 식민지배 서사 연구 『대화숙일기(大和塾日記)(1944)』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72집, 2017.
- 윤 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액자소설 연구 『사이고 다카모리』 『개화의 살인』 『봉교인의 죽음』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6집, 2013.
- 이동재, 「김남천 문학의 공간적 표상과 장소성 연구」, 한양대학교박사논문, 2022.
- 이정석, 「아쿠타가와를 매개로 본 이상과 박태원의 문학-「툼니바퀴」와 「적멸」. 「지도의 암실」의 상관성, 그리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한중인문학연구』 제28집, 2009.
- 이진형, 「식민지 말기 김남천과 글쓰기의 문제-「등불」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제51집, 2013.
- _____, 「치안의 유토피아와 정치의 (불)가능성-김남천의 「물」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7집, 2015.
- 장성규, 「1930년대 후반기 소설 장르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 정소영, 「김남천 「등불」에 나타난 서사 전략-서간체의 「재사용」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9집, 2009.
- 한만수, 「1930년대 검열기준의 구성원리와 작동기제」, 『한국어문학연구』 제47집, 2006.
- 한수영, 「일신상의 진리, 혹은 신체의 현상학-1930년대 김남천 문학의 방법론적 전회에 관한 재해석- 「남편 그의 동지」와 「물」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65집, 2021.
- 洪宗郁, 「戰時期朝鮮における思想犯統制と大和塾」, 『韓國朝鮮文化研究』 16, 2017.

The Distance between Kim Nam-cheon's Novel and ‘Geijyo-Yamato-juku’ in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 Centered around the epistolary style and frame format of ‘lamp light’ -

Lee Dong Ja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iterary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Kim Nam-cheon's four-fiction work “Lamp light” (1942.3), published at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and “Yamato-juku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ideological prosecutor Yujo Nagasaki. When seek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im Nam-cheon's literature from the epistemological confrontation with the “total institutions” that symbolically reveals the tyranny of the colonial system, it has been overlooked that he participated in the “Japanese spirits Training Center” hosted by ‘Geijyo-Yamato-juku’ for a month from March 10, 41. Formed as the successor of the ‘Union of Ideological and National Servants’, in January 41, Yamato-juku promoted a unique edification project that allowed ideological criminals to enter directly with his guardian to live in a community with a soft seal. At this time, the ideological offender took on the role of reproducing the wartime mobilization system as a teacher of the Japan language class at home, exposing his private domain transparently. It was a space planning that caused a huge threat to the fictional imagination of supporting novel literature and the author's inner autonomy by stealing the interpretive teaching power of the ideological force's sense of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mp light” is

* Hanyang University lecturer

transforming the demand for self-confession and sincerity increas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Yamato-juku system into a literary theme. Consisting of four epistles and one anecdote, this novel is a three-format teaching: a private novel, epistles, and frame structure. The epistles are a form of deliberately excluding the reader by putting forward an interesting communication network between the receiver and the sender. At this time, since the reader exists outside the communication channel, the reader can occupy the ‘observant’s position’ to capture the authenticity of the speech. Referring to the fact that Yuzo Nagasaki is also using epistles to convey his inner truth through the preface of “Daehwasuk Diary”, it can be judged that they were exclusive in terms of a literary form trusted by the observer. The point that deserves more attention is the frame structure that is established by parallel epistles. This frame structure clearly reveals that the three layers of ‘I’ (Nam-cheon Kim, the writer in the novel, and Yoo-sung Jang) surrounding the novel are divided. It allocates the reader a place to capture the authenticity of the speech, and the unity of the subject is dismantled. For this reason, the stated content of the novel becomes ‘unowned word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a single speaker. In this context, the ‘half novel’ implied by the narrator in the first epistles, which corresponds to the introduction of the novel, seems to be achieved through the frame structure of the text. This is because it disrupts the grammar of the four novels that try to read the author Kim Nam-cheon and the narrator of the novel as the same person and places the entire text at the main point of the novel called fictional prose art. It is also worth remembering that Ryunosuke Akutagawa, who Kim Nam-cheon has long taken as a role model, also introduced a framed format to separate his work from the private life novels. In this respect, “Lamp light” can be defined as the product of Kim Nam-cheon’s nostalgic language, which seeks to secure even a little literary freedom that is dying out in the spatial planning of the ideological control

organization.

Key words: Yamato-juku, Lamp light, epistolary style, rahmennovelle, private life novel,
Kim Nam-cheon, Ryunosuke Akutagawa, Yuzo Nagasaki